

# 사기범은 긴급상황을 만든다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이 모 씨(47·여)는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던 중 휴대전화로 끔찍한 전화를 받았다. “엄마야, 나 지금 납치됐어!” 전화 속 목소리는 다급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순간 딸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든 이 씨는 머리가 하얘졌다. 곧바로 다른 남자가 전화를 바꿔 받더니 험악한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지금 네 딸을 우리 조직이 붙잡고 있다. 당장 1시간 안에 5000만원을 준비해. 경찰에 알리면 딸부터...” 이 씨는 공포에 질려 “제발 아이 다치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애원했고, 상대는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큰 일 난다고 협박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녀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해 지시된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전화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자녀납치를 빙자한 보이콧피싱 범죄였다. 그는 한동안 분을 참지 못하며 “평소에는 나름 침착한 편인데, 그 순간에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안났다”고 토로했다.

사기범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위험 신호가 올 때 잠시 멈추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사기범의 의도대로 일종의 심리적 인질 상태가 되어 버리면 안된다. 전화든 문자든 나를 깜짝 놀라게 해 당황하게 만드는 연락을 받는다면 한 번 심호흡하고 일단 멈춰 볼 타이밍이다. 어렵겠지만 순간 깊게 숨을 고르고, 곧장 대응하지 말고 하나, 둘, 셋을 세면서 심호흡을 한 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한 고령의 피해자는 은행 창구 직원의 기지 덕분에 사기 이체 직전에 피해를 면한 일이 있었다. 직원이 불안해 보이는 고객을 수상히 여겨 말을 붙이고, 상황을 알아차린 덕분이다. 이처럼 본인이 침착함을 잃었다고 느껴지면 주변의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좋다. “잠깐 전화를 끊고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기범의 기세는 한풀 꺾인다. 사기범들은 절대 피해자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 자체가 이미 수상한 신호인 셈이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 역시 긴급상황을 가장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경찰청 ○검 사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입니다”라고 권위있는 말투로 전화를 걸어와서는 굳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지금 당장 본인 명의의 모든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 두어야 한다.” 일반인 입장에서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다. 수사기관이라며 소속을 사칭하고 있으니 선뜻

의심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130만 원을 이체했다. 또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편의점에서 상품권 200만원 어치를 사서 편 번호를 넘겨주기까지 했다. 결국 그는 총 330만 원의 피해를 본 뒤에서야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했다.

경찰이나 검찰 등 공식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에게 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전화를 받더라도 ‘이건 사기다’라는 판단을 훨씬 더 수월하게 내릴 수 있다. 만약 순간적으로 속아 넘어가 돈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즉시 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적절히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범죄에 대비해 가족과 미리 암호 질문을 정해 두거나 위치 확인 앱 등을 활용해 진위를 가리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다.

전문가들은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하지 마라”, “전화로 돈을 요구받으면 반드시 가족이나 경찰과 상의하라” 등 다양한 예방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순간의 침착함과 용기가 사기를 피하는 최선의 방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 뱃사공만 많은 가상자산법



기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법’의 입법이 표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마카·MiCA)과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등 입법 기준은 뚜렷한데도, 정치권에서는 ‘대동소이’한 법안을 쏟아내며 입법의 공로(功勞)를 다투고 있어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정부위원회에 입법이 제안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29건이다. 그러나 국회 임기가 절반을 지나 후반기 국회 출범을 앞두는 2년 동안 정부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다수의 법안이 위원회에서 표류중이지만

각 법안이 포함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주된 내용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화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자지급 허용 문제, 감독 주체 등에서 각 법안 간에 차이가 있지만 가상자산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여야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은데도 입법이 지연되는 것은 입법이 확실시 되는 법안을 두고 입법의 공로를 가져가려는 경쟁이 과도해서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만 15명에 달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도 60명을 넘긴다. 전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주도했던 여당의 디지털자산 TF에서도 입법 주체만 여럿이다.

정치권이 입법의 공로를 다투는 동안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경쟁력 약화와 매출 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로 주요 원화거래소들의 매

출이 급감했는데도, 국제 표준에 뒤처진 규제를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던 정치권은 뚜렷한 입법 시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금융결제환경의 변화를 준비하는 금융권과 핀테크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실증을 통해 관련법 입법과 동시에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준비를 마쳤는데도, 입법 일정이 밀려나며 본격적인 경쟁은 시작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입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한다. 수수료 수입 감소로 5개 원화거래소 가운데 4곳이 적자를 겪고 있으며, 국제 표준에 뒤처진 투자환경에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도 입법의 공로를 다투기보다, 현실적인 입법 목표와 기한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때다.

/ asj123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9일 (음 5월 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거듭 실패가 계속됩니다. **60년생** 매사가 안절부절입니다. **72년생** 과로를 피하고 잠시 휴양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4년생** 뒷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 49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61년생**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73년생** 내실을 충실히 기하는데 안전을 하세요. **85년생**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은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 50년생** 불필요한 고집은 자제하세요. **62년생** 부부사이에 언쟁을 높이는 일이 있겠습니다. **74년생** 겉만 좋고 실속은 없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86년생** 유혹이 심하게 다가옵니다.
- 51년생** 매사가 순탄하지 못합니다. **63년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75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87년생** 의도치 않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52년생** 역경 없이 보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운세입니다. **64년생** 열심히 일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76년생** 괴로운 일 후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88년생** 귀인을 만나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 53년생** 마음을 바르게 쓰면 큰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앞 뒤를 잘 가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세요. **89년생** 새로운 일을 취하면 성공합니다.
- 54년생** 대가만성의 운이 있습니다. **66년생** 금전의 유통이 잘 될 것입니다. **78년생** 좋은 기술을 배울 운이 있습니다. **90년생** 뭉개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 55년생** 뜻밖의 양심고백을 받게 됩니다. **67년생** 우연한 일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79년생** 하루가 다르게 번창을 합니다. **91년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됩니다.
- 56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68년생** 새로운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80년생** 모든 운이 뚝터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92년생** 가장 본심을 주의하세요. 중요한 소지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57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69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입니다. **81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세요. **93년생** 운대가 좋지 못합니다.
- 58년생** 자식들에게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70년생** 저녁에 약속이 생깁니다. **82년생** 뜻하지 않은 재물이 생깁니다. **94년생** 합격운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쁜 날입니다.
- 59년생** 주변사람을 한번 더 생각하세요. **71년생** 북방에서 원조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83년생**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95년생** 주머니에서 돈이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 김상희의四季 불사 참여와 가피

절에서 불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악화, 경제적 어려움, 건강 상실, 가족 불화 같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불교에서는 좋은 기운을 쌓아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불사에 참여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해법이 보이곤 하는데 그것은 곧 어떤 사람의 삶이 변화하는 시발점이 된다. 쪼인 일이 풀리고 괴로운 마음이 편안해지며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어쩌다 한번 불사에 참여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고 풀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원하는 마음으로 거듭 불사에 참여하면 삶이 달라지는 걸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참여하는 쉬운 방법은 연등 공양으로 봉축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연등 공양은 부처님 오신 날 아니어도 연중 원하는 시기에 가능하다.

원하는 내용과 간절한 마음을 연등에 담아 불을 켜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 때마다 열리는 초하루 법회나 보름 법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불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시하거나 법당을 정비하고 불상을 모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시주하는 방법이다. 법회가 있을 때 비용을 마련해서 보시하는 것도 좋은 불사의 방법이다. 절에서 법회에 필요한 것들을 가능해 두었다가 보시하는 형태로 참여하면 큰 공덕으로 쌓인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기도에 참여하거나 특정한 서원을 알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불사 참여의 한 방법이다. 불교에서는 불사 참가로 쌓은 공덕이 부처님의 가피가 된다고 말한다. 불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불사 참여로 어려운 문제가 풀려나고 편안한 일상이 열리면 결국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등을 밝히고 보시를 하고 기도를 올리는 다양한 불사 참여가 편안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퍼즐과 재미있는 퍼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3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3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